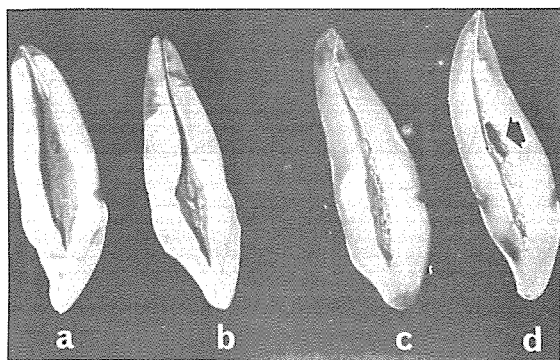


- 근관치료를 위한 근관형태(2)

- 상악 견치의 근관형태

상악 견치의 근관형태는 근관치료를 큰 문제점이 없는 형태이다. 다만 치아의 길이가 27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긴 근관확대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관형태는 치근의 치경부에서는 순설로 긴 넓은 타원형을 하며 치근단으로 갈수록 원형으로 좁아진다. 많은 경우 치근단부에서 근관은 순측경사를 하고, 치근단공은 방사선 사진상의 치근단보다 짧은 위치에 있으나 이는 방사선 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근관확대 전에 가는 근관확대 기구나 근관탐침용 기구를 이용하여 만곡의 방향과 정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치근단공의 위치가 방사선상의 치근단보다 짧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근관의 내부에 치수석이 형성되어 근관이 격별되면 두개의 근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으나 근관확대 과정에서 격별이 제거되면 본래의 하나인 근관이 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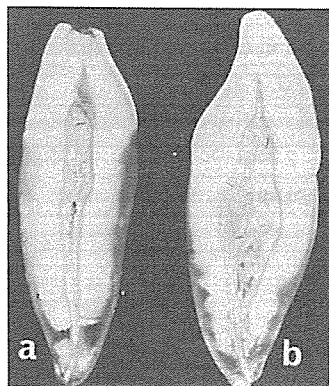
- 순설방향으로 넓은 근관
- 근관의 중앙부와 근단부에서 원형인 근관
- 근단부에서 순측경사를 하는 근관
- 근관의 중앙부에 치수석으로 인해 격별된 근관

- 하악 견치의 근관형태

하악 견치의 근관형태를 상악견치의 근관형태와 흡사하며, 치아의 길이도 비슷하다. 간혹 치근이 순설로 굵은 근관은 순측에 있고, 주 근관의 설측벽을 따라 열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주 근관은 통법의 근관확대를 시행하며 동시에 설측의 열구도 작은 근관확대 기구나 치수조직 용해제를 사용하여 치수조직을 제거하고 열구를 향하여 근관확대기구를 움직여 근관을 충분히 확대해야 한다.

(그림 2)

- 순설방향으로 가는 치근과 근관
- 순설방향으로 굵은 치근과 근관



崔鍾煥 치과기공소

서울·종로구 송인동 1081

전화 : 923-6671 · 923-2998